

보도일	2026. 5. 7(목)	위원장	이수진
담 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국	문 의	02-2630-7082,7086~7, womenminjoo@gmail.com

인천·경기·제주 여성후보들, “우리가 성평등의 증거이자 희망!”

-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비롯,
인천·경기·제주 여성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후보들 50여명 참석
- 전국여성위, 일산 킨텍스서 6.3지선 인천·경기·제주 성평등 공약 선포식 개최
-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기대감 고조, 여성·성평등 정책 중요성 부각
- 인천·경기·제주지역 여성들 노동권, 돌봄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6.3지방선거 인천·경기·제주 성평등 공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후보,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후보, 천영미 경기 안산시장 후보와 인천·경기·제주 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들 5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 부승찬, 김남희(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의원도 참석해 여성 후보들을 응원했다.

이 날 선포식은 30여 년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 탄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은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눈 앞에 두고 열리는 선포식이 의미 깊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도전은 수 십 년 간 깨지지 않던 유리천장을 깨고,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성평등 정치로 바꾸겠다는 시대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성평등 실천가였던 김대중 총재의 뜻을 받아 지방자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일을 언급하며, 지방의원 유급화 등 제도의 변화를 통해 여성과 청년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추 후보는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 인식의 차별, 임금 차별, 직장 내 권리 보호에

서의 차별 등을 겪고 있다”며 “여성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진출해 이를 해결하고, 그것으로 경쟁력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해내면 모두 다 해낸다”며 “경기도가 술선수범해 전국의 표준과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여성의 공감 능력과 연대 의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세계의 민주주의를 보려면 대한민국을 봐야 하듯이 여성 정치의 강점과 파워가 제대로 발휘되는 날이 곧 임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인천에서 최선을 다해 성평등 공약을 실천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는 “안성의 초등생들은 여성 시장을 당연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며 3선에 도전하는 소감으로 말문을 열었다. 김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여성들의 도전과 성공이 대한민국의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성평등 지수를 올리는 출발점이자 가장 큰 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후보는 “치열한 경선을 뚫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여러 선배들의 투쟁 결과”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구는 돌봄 때문에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가 많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도시에서 돌봄, 육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준비해 더 따뜻하고, 더 유능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는 “성평등은 여성만의 의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기준”이라며, “일자리 차별을 근절하고,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며, 폭력과 불안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시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제주지역을 대표해 3선에 도전하고 있는 강성의 제주광역의원 후보는 “제주는 전국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참여율은 높는데 정치 참여는 매우 더더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기초의원이 없는 제주 지역의 특성상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의 벽이 높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강 후보는 “제주에서부터 더 열심히 더 힘있게, 가열차게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다짐했다.

이번에 전국여성위원회가 제안하는 성평등 공약은 약 1,000여 명의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과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공약은 ■일자리·경제활동 ■돌봄·가족 ■젠더폭력·안전 ■건강·기후환경 ■대표성·추진체계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성평등 공약’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여성위원회가 제안하는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확산 ▲지역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및 확대 ▲1인 여성 자영업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 돌봄 통합 추진체계 강화와 재정 확보 ▲지역 디지털 성범죄지원센터 강화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지역 만들기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및 방문형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여성 참여 확대 ▲지역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기관 확대 및 강화 등이 있다.

* [별첨1] 현장 사진

* [별첨2] 전국여성위원회가 제안하는 <2026년 6.3지방선거 성평등 공약(안)>

2026.5.7.(목)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별첨1] 현장 사진





[별첨2] *나에게 착! 내 삶을 업!*

전국여성위원회가 제안하는 6.3지방선거 성평등 공약(안)

■ 일자리·경제활동 영역

번호	정책과제
1-1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확산
1-2	지역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및 확대
1-3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및 홍보
1-4	1인 여성 자영업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5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턴십 패키지형 도입
1-6	프리랜서 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의 경력인정 확대
1-7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1-8	비전통적인 직종(건설업 등)에 취업하는 여성노동자 지원
1-9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10	농어민 부부 공동경영주 등록제도 활성화

■ 돌봄·가족 영역

번호	정책과제
2-1	지역 돌봄 통합 추진체계 강화와 재정 확보
2-2	일·돌봄 양립 위한 노동시간 출소 및 유연근무제 강화
2-3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 틈새 돌봄 확대
2-4	가족 돌봄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2-5	돌봄 일자리 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2-6	다함께 돌봄 : 남성 돌봄 참여 촉진
2-7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2-8	고령·장애 친화 주거 및 공간 지원사업 지속 확대
2-9	돌봄 인프라 및 돌봄 서비스 확대
2-10	지역 돌봄지정인 제도 도입

■ 젠더폭력·안전 영역

번호	정책과제
3-1	지역 디지털 성범죄지원센터 강화
3-2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 교육 확대
3-3	디지털 안전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3-4	지역별 젠더폭력 통합 대응체계 구축
3-5	이주여성 인권상담센터 확대(전국 설치)
3-6	안전한 도시를 위한 기반 시설 확대
3-7	심야 시간 여성·아동·노인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3-8	여성 1인가구 안전한 지역 만들기

■ 건강·기후환경 영역

번호	정책과제
4-1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
4-2	임산부·산모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제공
4-3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및 방문형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
4-4	재생산 건강권 지원 확대
4-5	여성장애인 건강지원 사업 운영
4-6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4-7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사업
4-8	여성 생활체육 지원사업 활성화
4-9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활성화
4-10	기후위기 대응 여성참여 확대

■ 대표성·추진체계 영역

번호	정책과제
5-1	여성 후보 공천 확대
5-2	자치단체장 직속 청년 소통관 신설
5-3	지역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기관 확대 및 강화
5-4	성주류화 조치 실효성 제고와 활성화
5-5	학교 성평등 교육 체계화
5-6	성인 대상 성평등 교육 참여형 전면 개편
5-7	지역 성평등센터 설치 및 확대